

소 감 문

중3 김민우

나는 이번 방학동안 교회에서 하가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형 누나들하고 가서 신났다.

도착하고 방을 나누었는데 방을 나눠서 조금 긴장되었는데 그래도 경빈하고 환이랑 되어서 좋았다.

그뒤로 핸드폰을 걷는다해서 조금 섭섭했다.

기숙사라서 방을 가보니 가방이 많아보여서 처음보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깐 한방에 12명씩 쓴다해서 조금 걱정되었다.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1번째 날 목사님은 자기 인생이야기를 해주셨다. 인생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고 많은걸 배운 것 같다.

2번째 날에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집회를 했는데 성령집회가 조금 무서웠다 갑자기 목을 잡고 넘어뜨리는게 조금 보기가 그랬다.

3번째 날은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춤을 췄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형 누나들도 너무 신나게 놀아서 보기 좋았다.

4번째 날에는 민희하고 수진이누나가 성령집회를 받아서 옆에서 일어날때까지 기도를 해주었다. 2명다 일어나서 드디어 끝이난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깐 또 도현이형하고 예찬이형이 성령집회를 받아서 또 옆에가서 일어나기 전까지 기도를 해주었다 둘이 울고있는 모습이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끝까지 옆에 있어줬다.

5번째 날에는 마지막날이라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좀더 긴

시간을 보냈다. 저녁예배때 또 찬양을 해서 모든 친구들이 일어나서 신나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날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감문으로 쓰고 잘쓴 사람을 발표시켰는데 세별이가 되어서 큰 박수를 쳐 주었다.

마지막까지 거기서 만난 친구를 찾아서 서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눈물이 나올뻔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서 웃는 모습으로 헤어졌다. 그뒤로 몇 번 전화를 했다
소감문 끝!!!